

오랜 친구처럼 함께 한 나날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

한 모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친목이나 자기 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원들간의 이러한 신뢰는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는 회원들간의 단단한 유대 관계와 업계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결성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호텔 제과부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으로 구성된 모임은 새로운 세기에도 끊임없는 발전을 다짐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과업계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모든 모임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임은 사람들 사이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술인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회장 정희태)는 호텔 제과인들이 결성한 모임으로 24년 동안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꾸준한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결성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진 규모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 정희태 회장

76년 결성돼 왕성한 활동 펼쳐

한국관광호텔 제과사협의회(일명 동심회)가 결성된 것은 1976년으로 당시 세종호텔



▲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체육대회를 통해 동심회 회원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제과장으로 있던 김상엽씨와 몇 사람이 동참해 발족했다. 처음에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15명으로 조선, 세종, 서린 호텔 등이 주축이 되었다. 초대 회장에 김려숙씨를 필두로 2대 회장에 신라호텔 임현양씨를 비롯해 노재화, 김상엽씨 등이 모임을 이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워커히, 캐피탈 등 주요 호텔 대다수가 참여하고 회원수도 280여명으로 늘어났다. 동심회는 회원 구성이 호텔 제과 기술인이 주축이 된 만큼 최초에는 기술교류를 중요 목표로 모임을 진행했다. 호텔은 기본적인 베이커리 제품 이외에 디저트와 같은 고급 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원들의 기술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였다.

“초기에는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회원들에게 배합표를 나눠주고 샘플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심회는 임원단을 회장 1명 이외에 부회장을 9명으로 구성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분담을 시킨다. 이처럼 부회장 후원 체제는 바쁜 호텔 근무 가운데에도 각자에게 책임감을 갖게 해 원활한 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모임의 회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넉넉하지 않

지만 투명한 경영에 힘쓰는 한편 전문지 구독을 위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합된 힘으로 내실화 추구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안정화 된 후 동심회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존의 기술교류 이외에 체육대회를 신설해 회원들간의 우의를 다지며 전체가 모여 합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행사는 모임 설립 후 1년 후부터 진행해 회원들 사이에 새로운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때는 체육대회의 활성화에 따라 축구를 못하면 호텔 제과부에 취직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로 여의도 한강둔치와 뚝섬 운동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호텔의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후원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동심회는 초청 세미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원부재료 공장견학 등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해 활동하고 있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2~3달에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에 있는 정기 총회는 임원 선출 및 안전 상정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제

까지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한 모임은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단독적인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모든 일이 시간만 흐른다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와 규모가 있는 모임일수록 ‘일신우일신’ 하는 과정을 통해 중단 없는 발전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동심회의 활동이 면면히 계속 이어져 모임과 회원의 성장과 더불어 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동심회 회원들이 서울 하인즈 공장견학 후 촬영한 사진.

〈글 / 정한상 jeong@mbakery.co.kr〉